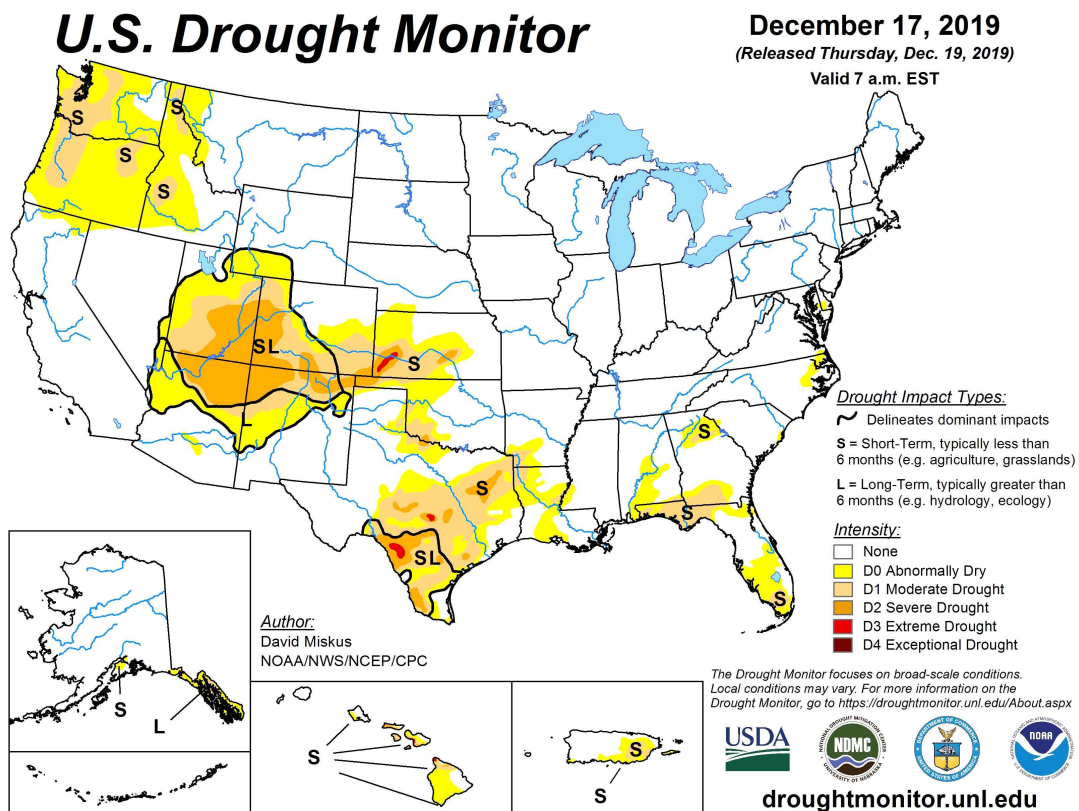


12월 2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91)

□ 미국 기후 현황(12/15~12/21)

추위가 발생하기에 앞서서 주초에 내린 눈이 중앙 평원에서부터 북동부까지의 지역을 덮어 주었다. 중앙 평원에서는 그 눈이 겨울 밑에게 유익한 수분을 주었고 단열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 눈은 중서부 아래쪽 전역에서도 밀을 단열해주었다. 먼 남쪽에서는 12월 16일,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에 수많은 토네이도가 휩쓸면서 극심한 날씨가 발생했다. 주초에 뇌우를 동반한 총 2인치가 넘는 강한 비가 테네시 계곡에서부터 남쪽으로 멕시코만 해안까지 여러 장소에 내렸다. 한편 태평양 북서부에도 강한 비가 내려서 워싱턴 캐스캐이드 서쪽에 작은 홍수를 일으켰다. 북서쪽 폭풍우가 고지대에 설피빙원을 약간 증가시키기는 했지만, 많은 강 유역에서 계절에 따른 축적량은 여전히 평년보다 훨씬 낮았다. 반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남부 평원까지, 북부 평원에서부터 중서부 위쪽으로까지 일반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주 하반기에 불어온 폭풍이 또 한 차례 초기 단계의 남부 강우를 불러왔다. 미국 내 많은 곳들에서 추위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대호 지역 위쪽과 오하이오 계곡에서부터 북동부까지 뻗어있는 지역은 물론이고 중앙 로키 산맥과 인근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 F 낮았다. 그렇지만 남동부의 많은 부분과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고원 북부까지 뻗어 있는 곳에서는 온화한 날씨가 주를 이루었다. 몬타나 일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았다.



## □ 농업 현황 요약(12/16~12/22)

<내용 없음>

## □ 세계 기후 현황(12/15~12/21)

■ 유럽: 대체로 건조하고 아주 따뜻했었던 유럽 대륙의 동부와 대조적으로 서유럽에는 강한 비가 내렸다. 남쪽으로 이동한 강한 제트 기류가 서유럽의 대기 중에 수분을 강처럼 흘려보냈다. 총강수량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10-70 mm 였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35-200 mm 였다고 보도되었다. 강수량은 동쪽으로 가면서 뚝 떨어져서 독일에서는 3-20 mm로 관측되었고 (서부에 가장 많이 내림), 폴란드와 다뉴브 강 계곡은 대체로 5 mm 이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이탈리아는 서부와 북부에 강한 비 (25-100 mm)가 내렸고 남부와 동부는 건조했다 (5 mm 이하). 결과적으로, 대륙의 서쪽 절반에는 휴면 중이거나 (북부) 영양생장 중인 (남부) 겨울 작물에게 적당하거나 풍부한 (지역적으로 과도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반대로 동유럽 일부에서는 단기 가뭄이 증폭되었는데 폴란드 남부와 중부 전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0일 강수량이 평년의 50 % 미만). 대서양에서부터 온화한 해양 공기가 유입되어, 특히 남폴란드에서부터 발칸반도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10° C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상 고온 때문에 겨울 작물의 내한성이 감소되었고 대부분의 재배 지역이 보호 시설이 없는 채로 있었다.

■ 호주: 뜨겁고 건조하여 좋지 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남퀸슬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있는 건조지 여름작물은 스트레스를 받아 지역 전체의 작물 상태가 대체로 불량했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 C 높아서 최고 기온이 대체로 높은 섭씨 30도 대에 있었다. 아직은 여름작물 재배기 초기지만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동호주의 많은 곳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장기 가뭄을 끝내려면 땅을 적셔주는 비가 속히 내려야 한다. 그 밖에 밀 벨트 내에서 남호주와 서호주는 날씨가 건조하여 겨울 작물 수확 작업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 아르헨티나: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려서 폭염과 건조 문제를 해소해주었다.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대에서 최소 10 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었는데, 가장 많은 강수량 (25-50 mm 이상, 지역적으로 100 mm 초과)을 기록한 지역은 라 팜파 북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북쪽과 동쪽 방향으로 국경을 넘어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다. 이 수분은 건조 때문에 다음 단계 파종이 지연되고 있었고 뜨거운 날씨가 생식기에 근접한 조기 파종 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중앙 아르헨티나의 다수확 옥수수과 콩 지역에서 매우 시기 적절했다. 남서쪽 농업 구역 (라 팜파 남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서부)만 예외적으로 이 유익한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주 후반에 심한 소나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동안 기온이 높은 30도 대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라 팜파와 코르도바를 포함하여 북부와 서부 농업 지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높은 30도대에서 낮은 40도 대까지 올라가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주간 평균 기온이 대략 평년 대비 1° C 내외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19일 현재, 해바라기가 작년의 100 % 대비 99 % 파종되었다. 옥수수와 콩은 각각 70 및 73 % 파종되었고, 면화는 87 %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73 % 수확되어 작년보다 (70 %) 약간 앞서 나가고 있었다.



■ 브라질: 중브라질과 남브라질의 핵심 생산 지역에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콩과 다른 주요 계절 여름작물들에게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건들을 유지해주었다. 마토 그로소와 토칸틴스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 동쪽으로는 미나 게라이스와 리오 데 자네이로의 서쪽과 남쪽 구역에 내린 총강우량은 25-50 mm였고, 지역적으로는 100 mm를 넘어갔다. 하지만 북동부 내륙 (그중에서도 특히 서바이하 그리고 마란하오와 피아우이에 있는 남부 농업 지대)은 조건들이 다시 좀 더 건조해져서 (강우량이 25 mm 이하, 어떤 지점들에서는 5 mm 정도로 적게) 이번 철은 북동부 농업 지대에 비가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 불규칙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낮 최고 온도가 쉼썩 낮은 40도 대까지 올라가서 북동부에서 콩류 및 대체로 영양생장 중인 다른 여름작물들에 대한 건조 피해를 악화시켰다. 마토 그로소에서 보다 일찍 심었던 여름작물들은 영양생장 및 종실 비대기에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지역적으로 기온이 40° C에 도달하기도 했던 곳들에서 빠르게 성장이 촉진되고 있었다. 더 남쪽에서는 몇 주간의 건조 후에 리오 그란데 도 술에 다시 비가 내렸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12월 19일 현재, 옥수수와 콩이 각각 92와 94 % 파종되었고 옥수수의 64 %가 생식생장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콩은 3 %가 개화되었다. 이번 주 강한 비가 내리기 전에는 강우가 평년에 아주 근접하게 내렸던 파라나에서는 12월 16일 현재, 1차 파종 옥수수와 콩의 각각 68 및 54 %가 생식생장 및 종실비대기에 있었다.